

傷寒六經病論中 陽明病의 病態와 少陰人 體質에 對한 病理的 比較研究

洪性範* · 洪淳用*

I. 緒 論

傷寒論은 後漢代(AD220) 名醫 張中景이 著述한 것으로 傷寒論을 비롯하여 金匱要略, 傷寒雜病論을 著述하였으나 雜病論 原形은 없 어지고 現在는 傷寒論, 金匱要略 두 冊만 남 아 있다.

傷寒論은 急性病을 治療하고 金匱要略은 慢 性病을 治療하는 法을 敍述하는데 傷寒論의 主 要骨子는 內經理論의 陰陽五行說, 臟腑經略說과 같은 抽象的 理論을 止揚하고 가장 合理的인 觀察과 具體的인 證治思想을 提示하였다.^{11,15,18)} 病에 있어서도 陰陽相對的 認識을 第一義로 하 고 內經의 陰陽觀이나 易理에서 말한 陰陽觀 과는 달리, 단지 發病狀態와 病情에 限定된 狹 義의 陰陽觀에 지나지 않으니, 假令 陽證인 境 遇는 熱性病으로 看做하고 陰證인 境遇는 寒 性病으로 表現하는 것 等이다. 즉 陽證은 體 溫이 上昇하고 代謝機能이 亢進된 狀態를 말 하며 陰證은 體溫이 下降하고 精力이 減退된 狀態를 말한 것이다.¹⁸⁾

이와같이 基本病態를 分類하고 다시 病의 進 行過程에 따라 3段階로 分類하였으니 陽證에 는 太陰·少陽·陽明이라 하고 陰證에는 太陰·少陰 ·厥陰이라 하였다.^{11,13,14,18)} 이는 非但 傷寒論에서

뿐만 아니라, 內經 素問熱論篇에도 六經病論을 論한 바 있어 傷寒論도 이에 準據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素問熱論篇에서 傷寒이 된지 1日에는 太陽 經에 病을 받고, 2日에는 陽明經에 病을 받고, 3日에는 少陽經에 病을 받으며, 4日에는 太 陰經에 病을 받고, 5日에는 少陰經에 病을 받 으며, 6日에는 厥陰經에 病을 받는다고 하였 으니, 이는 病의 轉變하는 過程을 說明한 것이 라 하겠다.¹⁷⁾

이와같은 六經病論 中에 特히 陽明病의 病態 와 少陰人 體質과의 病理的인 分類를 比較 研究한 것이다.

II. 研究資料 및 方法

1. 資 料

傷寒에 관한 古典에 刊行된 傷寒에 關係되 는 醫書 및 論文 等에서 補充資料를 取하였다.

2. 研究方法

〈東醫壽世保元〉中에 收錄되어 있는 〈張 仲景 傷寒論〉의 引用句節을 拔萃하여 四象體 質에 結付된 病理와 治療大綱을 分類하였다.

*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

Ⅲ. 研究 內容

1. 傷寒 六經病論

傷寒論에는 疾病을 陰陽相對的 認識을 前提로 하고 病理가 成立되었다.^{11,13,14,18)} 이는 內經의 陰陽觀이나 易理의 陰陽觀과는 달리 오직 發病狀態와 病情에 限定된 陰陽觀에 지나지 않으며, 假令 陽證일 境遇는 熱性病으로 看做하고 그 體溫이 上昇하며 神經이 興奮되고 新陳代謝機能이 亢進된 狀態를 말하며, 陰證일 境遇는 寒性病으로 表現하고 體溫이 降下하며 新陳代謝機能이 低下하고 精神氣血이 減退된 狀態를 말한다.¹⁸⁾

이와같이 陰陽의 基本的 病態를 規定하고 病의 進行에 따라 다시 三陽 三陰으로 分類하였으니, 三陽病에는 太陽·少陽·陽明이라 하고 三陰病에는 太陰·少陰·厥陰이라 表現하였다.^{11,13,14,15,18)} 이는 素問熱論에 「傷寒一日 巨陽受之 故頭項痛腰脊強. 二日 陽明受之 陽明主內 其脈狹鼻 絡於目 故身熱目疼而鼻乾 不得臥也. 三日少陽受之 少陽主膽 其脈循脇絡於耳 故胸脇痛而耳聾 三陽經絡 皆受其病 入腑 故可汗之」라고 한데서 準據한 것이라 하겠다.¹⁷⁾

이와같이 六經病論은 太陽病을 基本으로 하고 少陽 陽明病 및 三陰病으로 轉變된다는 理論이다.

2. 三陽病의 辨證

1) 太陽病의 主證은 傷寒論에서 「太陽之爲病 脈浮頭項強痛而 惡寒」이라 하였으며 이의 特徵은 脈浮다.^{11,13,14,15)} 이는 다른 病證에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 主證外에 다른 證候가 複合되었으면 少陽人 陽明病이 合病 또는 併病이 된 것이다.

太陽病은 一般的으로 外感風寒으로 생긴 感

冒, 毒感, 장질부사와 같은 表病을 말한 것이다.¹¹⁾

2) 少陽病은 大部分 太陽病에서 轉經되며 主證은 「少陽之爲病 口苦 咽乾 目眩也」라 하였으니^{11,13,14,15)} 이는 곧 自覺證인 것이다. 그러므로 三陽病의 病態를 把握하는 데는 太陽病은 脈診으로 判別하고 少陽病은 自覺證으로 나타나며 陽明病은 腹診으로 判斷한다. 少陽病에 口苦 咽乾은 半表半裏에 熱이 潛伏되어 正邪相爭의 現象이며 胸脇苦滿 寒熱往來가 隨半된다.

3) 陽明病은 「陽明之爲病 胃家實 是也」라 하였으니^{11,13,14,15)} 陽明은 手陽明大腸, 足陽明胃를 指稱한 것으로 胃와 腸의 病, 곧 消化器系統의 病을 말한 것이다.

古來로 韓方治法에 汗·吐·和·下·溫의 法則이 있어 傷寒治法에도 이에 準하여 太陽病에는 發汗을 시켜 解表를 하고, 少陽病에는 和緩을 하며, 陽明病은 內實, 不大便하므로 可及的 瀉下를 시킨다. 그리고 陰證에는 溫補를 原則으로 하였다.

4) 太陽病 表證에 其人이 如狂者는 鬱狂之 初證이요. 陽明病 胃家實에 大便이 不通하면 鬱狂之 中證이요. 陽明病에 潮熱이 있고 狂言하며 微喘直視者는 鬱狂之 末證이라고 하였고, 또 太陽病에 惡寒 發熱 汗自出者는 亡陽之 初證이요. 陽明病 不惡寒 反惡熱 汗自出者는 亡陽之 中證이요. 陽明病 汗多者는 亡陽證의 末證이라고 하였다.^{1,2,3,4,5)} 대개 鬱狂證은 身熱은 있으나 汗이 없고, 亡陽證은 身熱이 있으면서 汗이 나는 것이 다르다. 또 無汗하고 頭痛身熱이 있으면 太陽 陽明 鬱狂證이요. 自汗하고 頭痛이 있고 身熱이 있으면 太陽 陽明 亡陽證이다. 鬱狂證에도 輕重이 있지만 亡陽證은 險證이요 危證이다.^{1,2,3,4,5)}

亡陽證에는 非但 發汗만 볼 것이 아니라 반드시 小便이 적고 많은 것도 보아야 하니, 만일 小便量이 많고 맑으며 自汗이 있으면 脾約이니 險證이요, 小便이 붉고 濁하며 汗이 있으면 陽明病에 發熱 多汗證이니 危證인 것이다.
1,2,3,4,5)

本來 胃家實證은 처음에는 無汗하고 惡寒證이 없이 단지 發熱만 있다가 危境에 이르러 然微汗出하고 潮熱이 생긴다. 이는 表寒證에 振發力이 涸竭된 狀態다. 脾約證은 처음에는 身熱 自汗出하되 惡寒은 없다가 危境에 이르러 熱이甚하고 汗이 많으며 惡寒이 생긴다. 이는 裏熱을 이기지 못하여 脾氣가 끊어지는 證候이다.^{1,2)}

3. 陽明病의 病因

1) 張仲景曰 陽明之爲病 胃家實也. 問曰緣何得 陽明病. 答曰太陽病 發汗若下 利小便者 此亡津液胃中乾燥 因轉屬陽明 不便衣內實大便難者 此名陽明病也^{11,13,14,18)}

2) 傷寒轉屬陽明 其人漉然汗出也^{11,13,14,18)}

3) 傷寒 若吐若下後 不解 不大便五六日至十餘日 日哺所發潮熱 不惡寒狂言如見鬼狀 若劇者 發則不識人 循衣摸床惕而不安 微喘直視 脈弦者生 脈澀者死^{11,13,14,18)}

4. 陽明病의 分類

1) 張仲景曰 「陽明病 有三病 太陽 陽明者 脾約是也. 正陽陽明者 胃家實 是也. 少陽陽明者 發汗 利小便 胃中燥煩實 大便難 是也」라 하였다.^{11,13,14,18)}

2) 李濟馬¹⁾는 이에 對해 다음과 같이 論評하였다. 張仲景이 論한 바 陽明病의 세가지 證勢중에 첫째로 脾約이라 함은 汗이 저절로 나고 小便이 많아짐이요. 둘째로 胃家實이라

함은 大便을 보고 싶어도 굳어서 나오지 않는 것이요. 세째로 發汗·利小便하고 胃中이 燥煩實한 것은 이도 또한 胃家實한 것이니 세 가지 證勢가 아니라 두 가지 病證일 따름이다. 仲景이 脾約 云云한 것은 津液이 漸次 涸竭하여 脾의 潤氣가 말라가는 것은 말함이요. 胃家實 云云한 것은 津液이 이미 涸竭되어 胃의 全局이 燥實되어 있는 狀態를 뜻한 것이다.²⁾

5. 陽明病의 治療大綱

1) 陽明病 胃家實은 胃腸이 內實한 狀態를 말한 것으로 비록 熱性病에서 온 것이 아니라도 大便이 秘燥하면 下劑를 쓰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¹³⁾

또 陽明病에도 虛實로 分類해야 하니 白虎湯을 쓸 경우와 承氣湯을 쓸 境遇가 있다. 完全히 胃家實이 되기 전에 裏熱實證이 있어 所謂 仲景이 말한 少陽陽明이 되었을 때에는 白虎湯을 쓰고, 太陽陽明인 이른바 脾約에는 小承氣湯을 쓰고, 正陽陽明인 胃家實 卽 不更衣 大便難之證에는 大承氣湯을 쓴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白虎湯은 裏熱實證에 清熱을 하고, 承氣湯은 內熱實證에 瀉下를 시킨다. 여기서 裏熱이라 함은 內熱보다 아직은 病位가 淺部에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11,12,14,18)}

6. 四象醫學의 批判

李濟馬¹⁾는 이렇게 말했다. 옛날 中國 戰國時代로 부터 病을 治療하는데 汗·吐·下 3法을 써왔다. 이로써 傷寒을 治療할 때에는 太陽病 表證이 있으면 麻黃湯으로 發汗을 시키고, 豬苓湯으로 利小便을 시키며, 承氣湯으로 瀉下를 시켜왔다. 그래서 發汗을 하고 利小便을 시키며 泄瀉를 하면 脾의 潤氣가 漸竭하여 胃中이 燥煩·內實

하여 大便不通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疾病을 治療하는 法에 大便이 秘燥하면 의례히 大黃을 써왔다. 이로써 張仲景도 少陰人의 太陽病이 轉屬陽明할 때에 大黃大承氣湯으로 다스려 왔다. 그리고 溼然微汗出하고 胃中이 燥煩實하여 大便을 보지 못한지가 5,6日乃至10餘日이 되며, 日晡發潮熱하고 不惡寒 狂言如見鬼狀之時에 用之則 神効라 하였고, 若劇者는 不識人 循衣摸床 惕而不安 微喘直視할 때에 用之此則 脈弦者는 生하고, 脈澀者는 死한다 하였으니, 仲景方에 太陽陽明病에 쓰는 桂枝湯·人蔘桂枝湯과 같은 것이 있는데도, 굳이 大承氣湯을 쓸 症候만을 기다려 不大便 5,6日 日晡發潮熱 狂言時에 쓴다고 하였으니, 어찌 좋은 方法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辛辣하게 批判하였다.²⁾

少陰人 病候에 自汗이 없으면 脾가 弱한 것이 아니니 輕한 病이요, 비록 大便이 秘燥하여 胃家實이 되었다 해도 藥을 바로 쓰면 病이 쉽게 나올 수 있다. 이뿐아니라 少陰人은 모든 病에 發汗·利小便 瀉下하는 藥을 써서는 안되고, 비록 太陽病 表證이 있어도 溫補하고 升陽해야 한다. 만일에 瀉下를 시켜야 할 境遇에는 大黃을 쓰지 않고 반드시 巴豆를 써야 한다.^{1,2,3,4,5)}

傷寒論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陽明病은 太陽病이 있을 때에 汗·吐·下의 法을 써서 胃中津液이 乾燥하여 轉屬陽明病이 된 것이므로, 確實히 誤治에서 온 것이니 이는 少陰人 體質에 局限된 病의 轉變인 것이다.²⁾

IV. 總括 및 考察

陽明은 消化系를 指稱한 名辭로써 여기서 陽

明病이라 함은 대체로 熱性便閉의 뜻을 內包하고 있으므로, 胃家實이란 陽明病을 辨證하는데 重要한 根據가 되는 同時에 陽明病의 本質的 性格을 端的으로 表現한 것이 되겠으며, 餘他 身熱·發汗·不惡寒·反惡熱·大脈等 症狀들은 陽明病이라는 것을 判定하는 重要한 根據가 된다.¹⁸⁾

李¹⁾는 三陰病證은 모두 少陰人에게 있는 病證이요, 少陽病證은 少陽人에게 있는 病證이며, 太陽病證 陽明病證은 少陽人 少陰人 太陰人에게 고루 있으나 이 중에서 少陰人에게 가장 많다고 하였다.²⁾

張¹³⁾은 外感風寒에 惡寒發熱하고 頭痛이 있으며 陽脈이 浮하면 熱이 스스로 發하는 것이요, 陰脈이 弱하면 嘔이 저절로 날 것이니 將次 汗多亡陽證으로 轉變하기 쉬우며, 甚하면 胃中津液이 乾燥하여 轉屬陽明한다 하였다.¹¹⁾ 여기서 亡陽이라고 함은 嘔이 그치지 않는 것으로 外感이 되었을 때에 發汗劑를 쓰거나 下劑를 써서 眞陽이 脫亡된 것이다. 이는 體質的으로 少陽人에게 나타나는 現象이며 매우 危急한 證勢다. 太陽病이 轉屬陽明한다 함은 곧 汗多亡陽을 말함이니 胃陽津液이 已竭하여 口燥心煩하고 不惡寒 反惡熱함이 特徵이다.²⁾

傷寒에 吐하고 瀉한 뒤에 病이 풀리지 않고 大便이 5,6日乃至10餘日 不通되면 日晡發潮熱하고 헛소리를 하며, 甚하면 意識을 잃고 循衣摸床하며 惕而不安하고 微喘直視한다. 이와 같은 危境에 이르렀을 때에 仲景은 大黃大承氣湯을 써서 便通을 하면 神効하다 하였고, 그러나 脈이 강한 者는 살고 脈이 澀한 者는 죽는다고 하였으니^{1,11)} 確實히 陽明病 胃家實 治療에 自身이 없음을 端的으로 말한 것이다.

陽明病은 少陰人에게 있는 病證이니 만큼 承氣湯으로 瀉下해서는 안되고, 通便을 目的으로

한다면 반드시 巴豆劑를 써야 하며, 비록 半生半死의 危境에 이르렀을 지라도 八物君子湯 升陽益氣湯으로 升補之하면 脈弦者는 生하고 脈澹者는 死할 理由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少陰人 表熱病에 發汗이 없으면 脾가 弱한 것이 아니며, 萬一 汗多不止면 將次 亡陽證이 될 憂慮가 있으므로 可及的 溫補升陽하는 藥을 써야 한다.^{1,2,3,4,5)}

V. 結 論

傷寒六經病論中 陽明經病의 病態와 少陰人體質에 對한 病理的 比較研究를 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三陽病中에 陽明病은 少陰人 特有的 病證이다.

2. 少陰人 太陽證이 陽明病으로 轉屬되었다 해도 當然히 溫補升陽함이 原則이며 下劑를 써서는 안된다. 萬一 大便을 通하고자 하면 巴豆를 쓸 것이요. 大黃은 不可한 것이다. 처음 陽明病 胃家實이 되기 전에 體質을 알아서 溫補升陽하는 藥을 썼더라면 病者로 하여금 半生半死의 危境에 이르지 않게 했을 것이다.

3. 傷寒論에서는 陽明病 胃家實을 주로 보아 그 治療에 있어 胃家實의 輕重虛實 治法에 腐心하였고, 四象論에서는 體質에 重點을 두어 豫治에 力點을 둔 것이다.

參 考 文 獻

1. 李濟馬：東醫壽世保元， 서울， 信一文化社， pp.16 ~ 23, 1964.
2. 洪淳用·李乙浩：四象醫學原論. 서울, 杏林出版社, p.111, 147, pp.156 ~ 161, 166 ~ 169, 1973.
3. 尹吉榮：四象體質醫學論. 서울, 崇壹文化社, p.32, pp.34 ~ 46, 201, 207, 1973.
4. 韓東錫：東醫壽世保元註釋, 서울, 誠理會出版社, pp.119 ~ 120, 123 ~ 138, 1967.
5. 朴奭彥：東醫四象大典. 서울, 醫道韓國社, pp.110 ~ 125, 1977.
6. 李濟馬：四象金匱秘方. 서울, 杏林書院, p.30,
7. 李泰浩：東醫四象診療秘訣. 서울, 杏林書院, pp.42 ~ 43, 1983.
8. 洪淳用：四象體質論, 서울, 大韓韓醫學會誌, pp.66 ~ 69, Vol.3, No.2, 1982.
9. 朴寅商：東醫四象要訣. 서울, 癸丑文化社, p.67, 1975.
10. 元持常：東醫四象新編. 서울, 綜合醫苑社, pp.9 ~ 12, p.43, 1974.
11. 蔡仁植：傷寒論評註. 서울, 高文社, p.9, pp.142 ~ 148, 160 ~ 192, 1980.
12. 朴盛洙·廉泰煥：現代漢方講座. 서울, 大韓漢方醫學會, p.34 ~ 36, 1971.
13. 張仲景：新校註解傷寒論, 서울, 凡潮社, p.91, pp.254 ~ 303, 1962.
14. 大塚敬節：傷寒論解說. 서울, 東洋綜合通信大學教育部, p.393, pp.350 ~ 392, 1971.
15. 長濱善夫：東洋醫學概說. 서울, 東洋綜合通信大學教育部, pp.55 ~ 57, 131 ~ 133, p.135, 1971.
16. 李 挺：編註醫學入門 外集卷一. 서울, 大星文化社, pp.242 ~ 245, 1984.
17. 楊維傑：黃帝內經譯解. 藥群出版公司, ~252, pp.251 ~ 252.

18. 朴憲在：傷寒論概論. 藥業新聞社, p.127,
pp.123 ~ 155, 250 ~ 260,
19. 洪淳用：傷寒六經病態의 四象醫學的 認識.
서울, 韓醫學會誌, p.65 ~ 74.